

A decorative border in a reddish-brown color surrounds the central text. It features various traditional Korean motifs: a spiral, a seated figure, a dog, a bell, a scroll, and a doorway, repeated along the top and bottom edges. On the left and right sides, there are vertical motifs including a circular pattern, a building, a vase, and a hanging ornament.

북한학자 조희승의

# 임나일본부 해부

(任那日本府 解剖)

- 일본의 남부조선 지배론 비판 -

고려선비

# CONTENTS



## 01

### 《伽倻史》개관

- 금관가야국
- 고령대가야

## 02

### 《任那日本府》설의 조작과 실제여부

- 「임나일본부」설의 조작과 그 해독성
- 「임나일본부」는 조선에 있었는가?
- 「임나일본부」설 재검토의 시작

## 03

### 《任那日本府》설의 파탄

- 야마토정권의 서부일본통합시기
- 광개토왕릉비문에 나오는 「왜」
- 백제칠지도
- 에나 후나야마고분
- 전방후원, 정방후방분

## 04

### 《任那日本府》는 기비지방에

- 「임나일본부」의 위치
- 「임나일본부」의 정체

# 故 김석형(金錫亨)



출생 - 사망	1915년 ~ 1996년 11월 26일
성격	북한의 역사학자
출신지	대구
관련사건	조선어학회사건
저서(작품)	조선봉건시대 농민의 계급구성(1957), 초기 조일관계 연구(1966) 등 다수
대표관직(경력)	김일성종합대학 역사학부 교수(1946), 사회과학원 원장(1992)



대구 출생이며, 변호사 김의균(金宜均)의 아들이다. 아버지는 구한말 법관양성소 출신으로, 해방 후 미군정 시대에 경상북도 도지사를 역임한 바 있다. 김석형은 **1946년 월북하여 북한에서 한국사 연구, 특히 한국고대사 연구에 한 평생을 바쳤으며**, 유물사관(唯物史觀)에 의거하면서도 주체사관(主體史觀)을 강하게 지닌 **북한 역사학 정립에 기여**하였다.

김석형은 대구고등보통학교를 거쳐 1940년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조선사학과를 졸업하였다. 재학시절인 1939년 「신라 최치원과 그 시대」(경성제대 《사회학보》)을 썼고, 학부졸업논문을 1941년에 「이조 초기 국역(國役)편성의 기저」(《진단학보》14)란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일제강점기 말기에 양정중학교에서 교편을 잡다가, 조선어학회사건으로 1945년 3월 검거되어 그해 6월 함흥형무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해방과 더불어 석방되었다. 해방 후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조교수를 역임하였다.**

# 故 김석형(金錫亨)



1945년 10월 서중석(徐重錫)의 보증으로 공산당에 가입하여 활동하다가 1946년 대학동기생인 박시형과 함께 월북, 평양에 신설된 김일성종합대학 역사학부 교수로 취임하였다. 1948년 역사편찬위원회를 설치했을 때 부임위원이 되어 위원회의 운영을 맡고 위원회 간행 잡지인《력사문제》에 고려~조선과 관련된 6편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그 뒤 1956년 1월 과학원(사회과학원의 전신) 역사연구소 소장이 되어 1979년까지 재임하면서 북한에서 한국사 연구의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북한 역사학계의 중진·원로로 지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특히 해방 후의 애국적·민족적인 의식을 한껏 고취하는 한편 일제 식민사학(植民史學)에 대해 본격적인 비판을 가하는 가운데 한국사 체계화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와 관련된 저서로는《리조병제사》(1954),《조선통사(상)》(1956) 중 고려후기 부분,《봉건지배계급을 반대한 농민들의 투쟁(고려편)》(1960)이 있다.

1963년 김일성의 교시로 역사서술에서의 주체적 입장이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1970년대 후반에 이르면 주체 사관에 입각하여 전근대 시기의 역사를 체계화하는 작업이 대대적으로 추진되었다. 이 작업을 주도한 사람이 김석형이었다. 이때 나온 결과물이《조선통사(상)》(1977년판)와《조선전사》(전33권)였다. 특히《조선전사》는 북한사회과학원의 모든 역사연구자가 동원되어 집필된 것으로 1979년부터 3년에 걸친 작업의 결과물이었다. 이러한 공로를 김일성으로부터 인정받아 이후 학계의 요직을 거쳤다.

《초기 조일관계 연구》는 고대 일본 야마토(大和)정권의 임나일본부설로 대표되는 일본학계의 그릇된 한·일관계 역사상(歷史像)을 '분쇄'할 목적에서 저술된 것으로 서기전 3세기경의 야요이(彌生)시대 개시 이래 서기 7세기 전반경까지의 1천년 간에 걸친 고대 한·일관계사를 전반적으로 새롭게 다루었다.

그는 고고학과 문헌사학의 연구 성과를 활용해 일본으로 건너간 한국인들이 북구주(北九州)일대를 중심으로 하여 널리 일본열도 전역에 걸쳐 삼국의 분국(分國)을 형성했음을 입증하려고 하였다.

이 책은 김석형 개인의 저작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최길성·박문원·림종상 등이 세부내용을 집필하고 서술의 방향과 기본골격은 김석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 뒤에 그는 고고학 전문가인 <조희승>과의 공저로《초기조일관계사》상·하 2권(1988)을 저술, 이 책의 내용을 일부 보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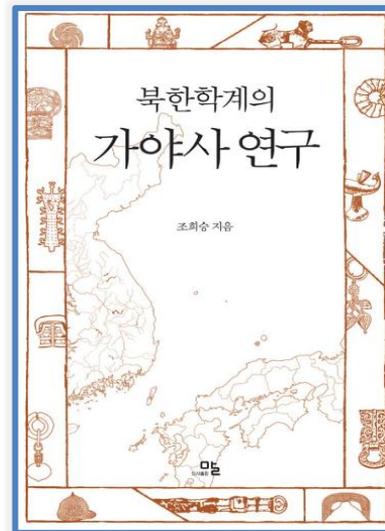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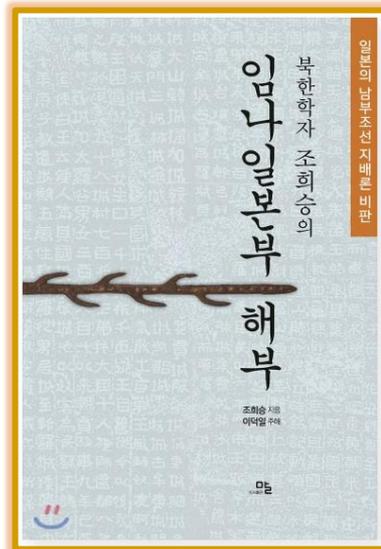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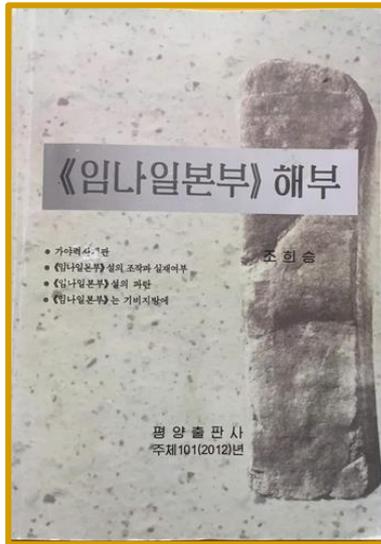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소장)  
전 사회과학원(역사연구소 연구사)  
전 사회과학원(상급 연구원)



재일교포 출신으로 북한으로 건너가 한일고대사 연구에 매진했다.

임나는 가야계가 일본 열도에 건설한 소국, 분국이라는 **김석형의 분국설을 계승**한 학자다.

1988년 《초기조일관계사(상)》에서 지금의 오까야마(岡山) 기비(吉備) 지역에 가야의 분국인 임나가 있었다고 논증했다. **《임나일본부 해부》**는 사이비학설인 임나일본설을 비판하고, **분국설을 일반 독자들에게 보다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2012년 간행**하였다.



- 초기조일관계사(1988)
- **일본에서 조선소국의 형성과 발전(1990)**
- 조선수공업사(1990)
- 가야사연구(1994)
- 조선의 비단과 비단길(2001)
- 동방격투술이야지(2001)
- 조선력사 인명사전(2002)
- 백제사연구(2002)
- <정한론>과 <서남전쟁>(2003)
- 유규한 역사를 자랑하는 단군조선(2004)
- 설화삼국사(2005)
- 고구려이야기(2007)
- 조선사회과학학술집, 력사학편(2010)
- 조선사회과학학술집, 고고학편(2010)
- **임나일본부 해부(2012)**

# 01

## 伽倻歷史 概觀



弁(高髻모자, 변/卍)辰/韓  
뿔이 난 고髻

< ... 승신천황때 이마에 뿔이 달린 사람이 배를 타고 고시국의  
계희의 표구에 정박하였다. 어느 나라 사람인가를 물으니  
오오가라국(대가야)의 왕자로서 이름은 쯤누가이라시도라고  
하며, 다르게는 우시기 아리시지간기라고도 부른다. ... >

1. 역사서에 나타난 가야
2. 금관가야국
3. 고령대가야

# 역사에 존재하는 가야국



## 가야국

⇒ 1C 중엽부터 6C 중엽까지 낙동강 하류 유역 일대에서 존재하는 봉건국가

古조선 → 朝鮮  
 삼한 → 大韓(民國)  
 진국 → 大震國(발해)  
 부여 → (北/東)南扶餘(백제)

서기전  
12C

고대시대부터 한반도 남부에  
**진국(辰國) 존재**

서기전  
1C

**진국의 한부분인  
변한내 구야(가락, 가야) 등  
20여 소국으로 혼재**하며  
**가야건국 이전부터 존재**

### 《가락국기》

9명의 우두머리(9한)이 있었는데, 그 위에 하늘에서 내려온  
김수로왕이 군림하여 나라(대가야)를 세움

### 《삼국지》 위서 한전(위지 동이전)

변한과 진한은 모두 24개국인데, 대국은 4~5천 가(家),  
소국은 6~7백 가로 모두 4만5천 호이다.

42년

**금관국(가야) 건국**  
⇒ 삼국사기, 삼국유사 기록

**김수로는 금관국(대가야-美稱)의 통치자로 추대(외부인?)건국**  
⇒ 5명의 형제(血緣X)가 5개 가야나라의 통치가가 됨

**금관가야(김해), 아라가야(함안군), 고령가야(상주군), 대가야(고령군),  
성산가야(성주군), 소가야(고성군)**

391년  
~407년

**가야 맹주 지위 변경**  
금관가야(김해) ⇒ **대가야(고령)**

**고구려-신라 연합세력**이 **가야-왜(큐슈 소국) 연합세력 공격**

532년

금관가야(김해) 멸망

554년 백제-가야(왜) 연합이 **신라에 패함**(성왕 전사)

562년

대가야(고령)=가야 멸망



## 금관가야(金官伽倻)國

- 6가야 중 역사가 가장 오래되고, 4세기 말경까지 가야(연합체)의 중심주도 세력으로 가야를 대변함
- 다른 가야명과 달리 가야가 아닌 **국명**을 사용

- 금관가야국은 이미 낙동강 하류 김해지방을 중심으로 **가락(駕洛)**이라는 소국으로 형성되어 있다가 **42년 김수로에 의해 대변되는 북방(해양)세력과 토착 세력이 결합하여 비교적 큰 나라를 세우게 됨** 이 지역은 ① 농업생산에 유리한 자연지리적 조건, ② 풍부한 철 매장지로 철 생산과 가공 수준도 높음 ③ 철 등 수출이 용이한 항만 지역이었기 때문

## ▪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실린 건국설화

구지봉에서 하늘에서 노끈으로 묶은 보자기에 싼 황금알 6개가 내려와 10여일 지나 9척이나 되는 어른으로 성장하여 이 중 처음 나타난 자인 수로(首露)라 하고, 나라이름을 대가락(가야국)이라 하였으니, 이는 곧 6가야의 하나이고 남은 5명도 각각 5가야의 임금이 되었다.

- 가야소국의 형성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금관가야국을 맹주적 지위를 하는 가야 봉건국가(연합체)의 형성 사건을 세상에 선포하고 공고화하기 위한 일을 기록한 것.**
- 묘제를 볼 때 **5가야는 형제가 아니라 동맹체임**  
: 금관가야 왕족은 북방고조선, 평양 일대에서 보이는 **나무곽무덤(귀틀무덤)**을 장법으로 하는 집단이나, 다른 5가야 왕족은 가야 재래의 묘제인 **수혈식 석곽(석실)무덤**이 지배적이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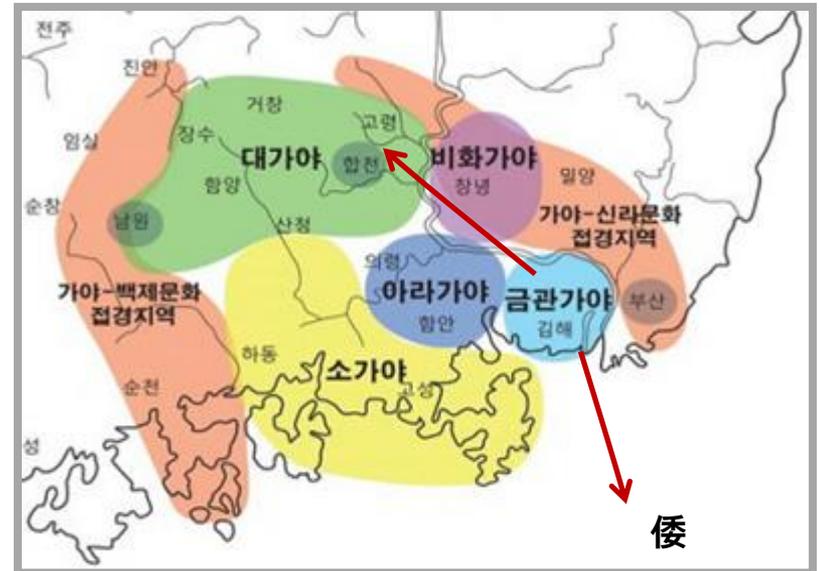
# 가야연맹의 위치



전기 가야연맹



후기 가야연맹



# 금관가야국의 멸망



3~4C



신라의 영토확장 전쟁

가야는 신라에 일부 영토를 빼앗기며 타격을 입고, 백제의 협력하며 동맹관계로 진전

伽倻+倭(北九州)+百濟 ↔ 高句麗+新羅  
(전쟁)

391년



伽倻+倭(北九州)+百濟의 신라공격

396년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한성백제 공격

백제 개로왕이 죽고, 고구려의 노객이 되겠다며 항복  
백제는 많은 영토와 대신 등을 포로로 보냄

399년



백제는 맹세를 어기고 왜 등과 공모하여 신라 공격

- 신라왕의 요청으로 광개토대왕은 5만 기보병 지원
- 남거성-신라성-임나가라의 종말성에서 고구려에 항복함으로써 금관가야는 심각한 타격
- 아라가야(함안)의 지원으로 가야계 회복

금관가야



- ① 고령가야로 진출하고 이후 고령가야가 대가야국으로 맹주국 지위
- ② 잔존 : 왕족 김구해(-김무력-김유신)
- ③ 일본열도 소국으로 진출  
: 이토시마반도(구주), 세토내해(오까야마), 기내(나라인근)

532년



신라에 병탄

# 고령대가야



## 고령대가야

- 경북 고령군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 **대가야**란 호칭은 6가야 중에서 마지막 시기에 **주도적 지위(맹주)**에 있었기 때문 ⇒ 별개 **건국신화** 창조

- 고령대가야는 농업 생산과 강력한 철생산 기지 보유 함.
  - 고령군의 령현의 **야로(冶爐)현**(=합천군 신묘리)은 철생산지  
(⇒ 세종실록지리지에 조선 3대 철산지, 연 9,500근 공납)

- 최치원의 《석 리정전》 - 가야산신이 대가야왕과 금관가야국와의 두아들을 낳음
- 《南齊書》(列傳 가라국조) - 건원(479년) 대가야국왕 하지가 南齊에 사신을 보냄
- 고구려 남진 저지위해 3국(백제-대가야-구수倭) 동맹 가담

532년



금관가야 멸망

533년



신라의 한강유역 진출

신라의 나제동맹 파기

455년, 475년, 481년, 484년, 494년, 495년  
고구려 침략 저지

544년



관산성 전투

백제-가야 연합군 대패(성왕 전사)  
김무력의 대가야 공격  
→ 대가야 쇠락

562년



대가야 멸망

신라의 공격으로 대가야 항복  
대가야의 멸망과 함께 500년의  
가야역사도 마감함

일본극우학자들이 주장하는  
4C중엽~6C중엽 사이 남한의  
가야지역을 기내 야마토정권이  
200년간 《임나일본부》를 설치하고  
식민지배가 가능한가 ?

# 02

## 《任那日本附》설의 操作과 實在與否



1. 《임나일본부》설의 조작과 그 害毒性
2. 《임나일본부》는 조선에 있었는가?
3. 《임나일본부》설 재검토의 시작

# 《임나일본부》란?



## 《임나일본부》(미마나미야케/任那官家)

- 고대시기 기내 야마토(日本, 大和, 大倭)정권이 조선의 가야지방에 설치하였다고 하는 식민지 통치기관
- 임나일본부 → 야마토노미꼬도모찌 또는 **미마나(任那)미야께<sup>1</sup>(官家)**

<sup>1</sup> **미야케**(屯倉, 郷宅, 三宅)는 고대 야마토 정권의 직할령을 의미(창고관리→행정사무소→사신접대소→국사→ 총독부로 변질)

## 《任那日本府/미마나미야께》說은

야마토 정권이 조선의 가야지방에 식민지통치기관을 설치하였으며 그것은 비단 가야에 머무르지 않고, 백제, 신라까지 포괄하는 광활한 지역을 일본의 야마토정권이 직접 지배했다는 **사이비학설**이다.

## 《日本書紀》의 임나일본부 기록

- 승신(천황) 65년(B.C.33년), 수인(천황) 2년(B.C. 28년) → 任那인이 倭에 건너감.

**<승신 65년>條**에 “任那는 축자국에서 2,000여리 떨어져 있으며, 북쪽으로는 바다로 막혀 있고, 계림의 서남쪽에 있다. (任那者, 去筑紫國二千與里, 北阻海以在鷄林之西南)

- 신공황후 49년(249년) + 120년(간지두순)=369년 → 야마토의 倭가 任那에 출병하며 이를 전후로 任那관련 기사 증가
- 《**응락기, 계체기, 흠명기**》에 집중 기록
- 야마토 倭는 임나를 평정하고 백제에게서도 <조공>의 맹세를 받고 이후 남부조선에 계속 병력을 파견함.
- 463년 <國司>, <日本府>를 두어 任那王과 任那를 경영
- 倭에 의한 任那 지배는 369년~562년(대가야 亡)의 200년 간의 기록인데, 임나 경영이 끝난 후에도 <임나의 조공>은 646년경까지 신라 또는 백제에 의하여 계속됨.

⇒ 이러한 황당무계한 <남부조선지배>론은 신공황후의 삼한정벌과 야마토정권의 임나 출병이라는 《**일본서기**》의 기사에 토대하여 작성되고 확장됨

# 역사학을 창시한 일본 육군참모부



일본 편사학은 제국주의 일본의 조선침략, 대륙침략을 위한 군국주의적 침략목적에 철두철미 복무한 어용도구

## 일본 육군참모본부

1872-3년

조선, 만주에 현역군인(간첩) 파견

- 조선의 역사(고대 일본과 조선의 역사연구), 지리, 풍속 내탐
- 조선 침략에 유리한 구실로 되는 자료 주목

1880년

<皇朝兵史> 출판

<일본서기>를 개악하여 신공황후 삼한정벌, 응신, 인덕천황의 신라정벌 등 군인에게 침략사상 주입 목적

1882년  
(임오군란)

<任那考稿> 제시

<일본서기>에 실린, 조선을 고대일본이 식민지화 하였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려 함  
- 요꼬이는 《임나고》, 《임나국명고》를 참모본부에 제공

1884년

광개토대왕비 탁본(쌍구본) 취득

간첩 중 1명인 사카와 가게아끼(참모본부 대위)가 취득

1889년

《會餘錄》 출간

저자 <요꼬이>는 광개토대왕비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발표

도쿄제국대학 국사학과 신설  
(참모본부 → 도쿄제국대)

제국대학을 중심으로 일본역사와 조일관계는 국책에 따라 연구

《임나일본부》에 관한 문헌적 근거는 《일본서기》가 唯一無二

- 동시대 기록인 《삼국사기》, 《삼국유사》, 당대의 금석문에도 '미야케'에 대한 기록 없음.
- 명치유신 이후 조선침략의 구실로 역사학을 채택하고, 그 이론적 근거로 《일본서기》의 기사를 과대 확장하여 그럴듯한 학설로 만든 것이 《임나일본부》 설립

# 《同祖同根》論의 대두



《동조동근》론은 《내선일체》, 《일한동조(족)》론 으로 확산될 사상적, 이론적 기초가된 **사이비학설 임.**

- 도쿄제국대학을 중심으로 한 任那史 연구가 일제의 조선침략의 합리화를 위한 **학술적 이론 제시함.**
- 조선 식민지 쟁탈전인 러일전쟁을 전후로 《임나일본부》 변형 학설이 대량 선전

주동자	내용	영향
오까꾸라 텐신 (岡倉天心) 1862-19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술행정가/도쿄음악학교교장/보스톤 미술관 동양부 관리자</li> <li>- 단군은 일본시조 아마테라스 오오미노가미의 아우 스사노오노 미코토의 아들이며, 조선은 신공황후 이후 500년간 일본 지배하 속주</li> <li>- 조선과 일본의 고분출토의 유사성은, 태고부터 일본이 조선 지배 입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한동조론 제시</li> <li>- 조선을 식민지화는 침략이 아니라 역사적 원상복구</li> </ul>
니또케 이나조 (新渡戶稻造) 1862-19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쿄대학의 식민지정책강좌 담당교수</li> <li>- 武士道(영문, 1905)발간으로 일본민족 우수성과 러일전쟁이 일본에 승리하도록 미국내 분위기 조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민족 모독에 앞장선 자</li> <li>- <b>일본 지폐 500엔 주인공</b></li> <li>- 이등박문의 앞잡이</li> </ul>
기다 사다기찌 (喜田貞吉) 1871-193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사학자, &lt;역사적으로 본 일한동지역의 복고와 확정&gt;</li> <li>- 일본 사학계를 대표하여 &lt;한일합병&gt; 축하</li> <li>- 일선민족동원론을 제기하여 조선점령 이론을 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t;일본서기&gt;의 기사와 탁상 고고학에 근거하여 학설 제시</li> </ul>
시라토리 구라키치 (白鳥庫吉) 1865-19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경제국대 사학과 1회 졸업생</li> <li>- 임나-가야설을 주장한 '나카 미치요'에게 배우고, &lt;삼국사기 불신론&gt;을 주장한 '스다 소키치'와 '이케우치 히로시'를 제자로 키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선과 만주침략을 위한 연구 및 학자들을 양성</li> </ul>
쓰다 소키치 (津田左右吉) 1873-19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와세다대에서 시라토리에게 사사</li> <li>- 만주철도 산하 &lt;만선지리역사조사실&gt;에서 &lt;임나강역고&gt; 등을 통해 만주와 조선의 역사 왜곡 주도(고사기, 일본서기 신연구, 백제에 관한 일본서기 기재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삼국사기 불신론 주장</b></li> <li>- 과학의 탈을 쓴 침략논리 제공</li> </ul>
이케우치 히로시 (池内宏) 1878-195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쿄제국대 출신 실증을 표방한 식민사학자</li> <li>- <b>반도사관으로 한국사 영역 한반도 내로 대폭 축소를 주도 한 학자</b> (고려국경 축소 : 공험진 → 함경남도 안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증을 탈을 쓰고 한국사 왜곡</li> </ul>

# 《同祖同根》論의 害毒性①



일본 어용 역사가들이 《任那說》+《樂浪說》을 적극 주장 ⇒ 일제의 조선침략과 지배를 합리화하기 위함

- ① 조선민족의 넋을 빼앗아 사대주의와 민족허무주의를 심어 놓아 조선의 민족자주정신 말살
  - ② 일본이 옛적에 잃었던 땅을 되찾는다는 복고주의적 야심을 일깨워 일본의 대륙 침략을 정당화 하기 위함
- ⇒ 《正體論》 조선은 태고적부터 자기 혼자서는 사회를 발전시킬 힘이 없는 열등 민족이며,  
《外人論》 남의 나라 힘에 의거함으로써 만,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

주동자	내용	영향
<p>아유가이 후사노신 (鮎貝房之進) 1864-194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성황후 시해에 가담한 일본 낭인 깡패 출신</li> <li>- 잡고(雜攷)에서 任那 7국 위치를 아무런 근거없이 한반도에 비정</li> <li>- 이를 쓰에마쓰 야스카즈(末松保和)가 추종하여, 任那를 한반도 남부로 비정</li> </ul>	일제의 조선침략과 지배 합리화
<p>후지타 료사쿠 (藤田亮策) 1892-196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쿄제대출신 고고학자, &lt;조선사개설&gt;</li> <li>- 이마니시 류(今西龍)가 사망한 후, 뒤를 이어 경성제대 및 조선사편수회에서 근무하면서, 고고학을 빙자해 식민사학을 전파하고 한국사를 깎아 내림</li> </ul>	'조선인이 쓸데 없는 자부심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것'을 기본사명이라 교육
<p>이나바 이와기치 (稻葉岩吉) 1876-194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러일전쟁때 통역관, 만철 조사부, 조선사편찬위원, 만주건국대 교수</li> <li>- &lt;秦나라 만리장성 東端고&gt;에서 진나라 만리장성이 황해도 수안까지 내려왔다고 주장하고, 이를 이병도가 추종하여 낙랑군 수성현이 황해도 수안이라 비정</li> </ul>	동북아역사지도의 만리장성이 평양까지 그리게 한 단초를 제공한 인물
<p>아야가와 타게시 (綾川武治) 1891-196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쿄제대 출신의 국가주의자, 중의원출신</li> <li>- 남만주철도의 동아경제조사국에 근무하면서 극우단체인 猶存社, 行地社, 國本社, 大政翊贊會 등에 가입 황국사관 전파 앞장</li> </ul>	일제 상층부에서 <任那說>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주장
<p>아오야나기 고타로 (靑柳綱太郎) 1891-196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큐슈 사가 출신, 우편국장, 궁내부의 장서 정리 등을 역임</li> <li>- 영국이 식민지 경영을 하면서 조사 연구에 많은 투자를 한 것처럼 조선의 풍속과 민정을 알아야 하는 것은 식민지 경영의 시대적 요구라고 보고, '호소이 하지메(細井肇)로 부터 &lt;조선사연구회&gt;를 인수하여 운영</li> </ul>	일본 지식인들은 한국을 식민지로 전락시킬 방법으로 한국의 고서 원본을 수집, 간행하여 한국 전래의 지식을 습득

# 《同祖同根》論의 害毒性②



일제는 《동조동근》, 《내선일체》를 통해 조선 민중들이 민족 허무주의와 일본의 사대주의로 하여금 조선민중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훼손시켰으며,  
 그 바탕에 놓인 《임나일본부》의는 제국주의 일본에게 있어서 國是<국책>이었음

주동자	내용	영향
<p>하따가 다까시                      (旗田魏)                      1864-194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사연구의 권위자</li> <li>- 저서 &lt;신조선사입문&gt;, &lt;조선사상의 제문제&gt;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조선사에는 자주적 발전이 없다.</li> <li>② &lt;일선동조론&gt;이라는 조선사상이다.</li> <li>③ 조선의 후진과 낙후를 주장하는 정체론이다.</li> </ul> </li> </ul>	<p>이지러진 조선사상을 만들어내고,                      그릇된 조선관-민족적 편견 형성을 주도</p>
<p>미시나 쇼에이                      (三品障英) / 1902-197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쿄제대 출신의 해군교수</li> <li>- &lt;삼국사기&gt;불신론의 견지에서 한국고대사 부정</li> </ul>	
<p>후쿠자와 유키치                      (福澤諭吉)                      1835-190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계몽사상가, 게이오의숙(慶應義塾) 창설자</li> <li>- 김옥균의 개화파 지원</li> <li>- 脫亞論 주장, 중국과 조선을 대하는데 서양인들이 저들을 대하듯 처분하면 됨.</li> </ul>	
<p>후쿠다 도쿠조                      (福田德三)                      1874-193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본 경제학의 개척자, 도쿄상대와 게이오의숙 교수</li> <li>- 조선의 경제수준이 일본에 비해 1천여 년 가까이 낙후되었다는 &lt;정체성론&gt; 주장</li> </ul>	

# 《임나일본부》는 조선에 있었는가?



## 불청객(일본인 학자)들이 주도한 조선 고고학(연구)

- 조선 고고학의 개막은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 독점 당함
- 조선 유적발굴조사 규칙은 총독부의 해당하는 관리 이외의 사람에게는 유적 발굴 시키지 않음
- 조선인민의 피땀을 빨아들인 조선총독부의 막대한 자금을 탕진하면서 고분발굴 강행
  - ① 조선의 낙후성과 정체론을 증명할 자료와 ② <임나일본부>를 입증할 물적증거를 확보하기 위함

주동자	내용	영향
간 마사토모 (菅政友) 1824-1897	- 일본 미토번(水戸藩)출신의 국학자이자 정한론자 - <임나고>를 편찬하고, 1873년 이소노가미 신궁(石上神宮)에서 백제 칠지도에 명문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때 일부 글자가 의도적으로 지운 의혹도 있음	신공황후가 신라정벌을 감행한 해를 362년으로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조선지배를 논함
이마니시 류 (今西龍) 1875-1932	- 기후현 출신, 도쿄제대 출신의 식민사학자, 경성제국대 교수 - 1913년 평안도 용강현에서 <점제현 신사비> 발견 - 한국 고대사를 연구하면서 <임나일본부>를 살리기 위해 <삼국사기> 불신론을 주장	일본사가 B.C.660년 시작 주장
아세키노 다다시 (關野貞) 1868-1935	- 도쿄제대 건축학과 출신 건축가 - 1916-1935 <조선고적도보> 편찬, - 한국 북부 가는 곳마다 漢나라와 낙랑군 유적을 찾아내는 '신의 손' 임	조선 경상도를 중심으로 전국에 걸쳐 고분발굴 계획
후지타 료사쿠 (藤田亮策) 1892-1960	- 도쿄제국대 일본(국)사 전공, 경성제국대 교수 - 조선총독부 고적조사 위원, 학무국 박물관 주임, 조선사편수회 위원 역임	한국사 왜곡에 앞장

# 조선내 고분 약탈행위의 後果



발굴, 조사 책임자였던 <야쯔이> 왜 한 편의 발굴조사 보고조차 쓰지 않았는가?

⇒ 《임나일본부》를 증명할 유적과 유물이 그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

⇒ 경남지역의 유적유물들이 자칫 잘못하면 야마토 정권의 《임나일본부》가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반대로 일본 열도내 조선소국(분국)의 존재가 증명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

일본 어용학자들의 고분파괴, 도굴, 난유적지 보고서 미발표 등 행위

- (일본인들도 비판) 당시 조선총독 우가끼 가즈시게, 고이즈미, 후지따료사꾸 등은 <참담한 도굴고분>, <눈을 가리우는 참상>, <일본 문화수준을 땅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행위> 등 비판, 질책함.

⇒ 《임나일본부》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추구한 데로 부터 빚어진 後果

일본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전남 나주 반남면의 전방후원분(前方後圓墳)》은 왜 발굴 보고서가 없는가?

- 1917-18년 야쯔이 세이이치(谷井濟一)가 발굴 후 “아마 왜인의 무덤일 것이다” 라고 함.

- 1983년경 한국 남부지방에서 전방후원분 본격적으로 발굴

- 1990년 북한에서도 일본보다 200~300년 이른 전방후원분 발굴

⇒ 나주의 전방후원분은 이 지역 사람들이 일본 열도에 진출 했다는 증거 이기에,

일제 강점기 발굴하고는 덮어 버린 것임(잃어버린 왕국, 나주 반남고분군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1990, 조희승)

# 북한의《任那日本府》說 재검토의 시작



북한의 《임나일본부》설을 깨뜨리기 위한 연구사업 ⇒ **조선고대사 체계를 재정리, 재확립하는 과정으로 진행**

## ① 《삼한삼국의 일본열도 내의 분국에 대하여》 <역사과학> 1963년 1호(조희승)

《미마나미야케》설이란 일본의 <야마또정권>이 세 나라 시기에 가야지방을 강점한 다음 저들의 통치기관을 설치하고 수백년간 조선의 남부지방을 지배했다는 역사적 사료와 고고학적 증거는 없었고, 역사적 사실은 이와 정반대로 우리 선조들이 일찍부터 일본 열도(서부 일본, 기내지방)에 적극 진출하여 개척자적 역할을 하며 일본의 정치, 경제, 문화에 큰 영향을 주었다.

또한 4C의 기내 <야마또정권>은 야마또지방의 호족연합체적 세력에 불과하고 조선에 출병할 만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갖추지 못했다.

## ② 《후나야마고분부터 출토한 칼의 명문에 대하여》 <역사과학> 1966년 2호

## ③ 《초기조일관계연구》 <사회과학원출판사> 1966년

## ④ 《광개토왕릉비》 <사회과학원출판사> 1966년

일본은 《황실사관》을 타파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황실사관》의 기성틀 속에서 일본 제국주의 시대 선학자들의 장을 넘지 못하여 결국, 일본 고대사체계를 뒤집을 만한 주장이 나오지 못함.

<민족적 감정에서 나온 것>, <민족적 견지에 따른 문제 제기>, <전후(1945년 이후)일본학계의 성과를 모르고 하는 문제제기>, <사료인용에서 억지가 많다>는 식의 **북한의 과학적 근거들을 무시하고 단순히 식민지시대의 <민족적 감정>에서 출발한 것으로 묘사하며 거기에 몰밀어 버림**

# 03

## 《任那日本府》說의 파탄(破綻)



1. <야마또정권>의 서부일본 통합시기
2. 광개토왕릉비문에 나오는 《倭》
3. 백제칠지도
4. 에다 후나야마고분
5. 전방후원, 정방후방분

# 남한 사학자들의 《任那說》 옹호 근거



근거 / 주장	한계
① <광개토대왕비>의 《任那伽羅從拔城》 기사	앞뒤로 다른 글자들은 대부분 지워졌는데, 이 글자와 '倭', '安羅'처럼 일본에 유리한 글자만 선명히 남아있어 <b>일본군 참모부가 지웠다</b> 는 의혹이 있다.
② 중국 《翰苑》신라조에, “《齊書》에서 말하기를, '가라와 임나는 옛날 신라에 의해 멸망했다. (伽羅·任那昔爲新羅所滅)”고 말한 부분	<b>가라와 임나를 각각 다른 나라로 보고 서술</b> 하고 있기 때문에 '임나=가야설'의 근거가 될 수 없다.
③ 《通典》<동이 신라국>조에 “그 (신라의) 선조는 백제에 부속되어 있었다, 후에 백제가 고구려를 정벌할 때 사람들이 균역을 감당하지 못해서 서로 이끌고 귀순해서 비로서 강성해졌다. 그래서 가라·임나의 여러나라들을 급격해서 멸망시켰다.” 는 기사	이런 기사는 《삼국사기》의 삼국과는 <b>다른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임나=가야'의 논리가 될 수 없다.</b>
④ <진경대사 탐비>의 “대사는 휘는 심희이고 속성은 신김씨인데, 그 선조는 <b>임나의 왕족</b> 이다.	③, ④는 <b>일본 열도내 분국들 사이의 관계로</b> 봐야한다.
⑤ 《삼국사기》<강수열전>에 “신(강수)은 본래 임나가량 사람입니다.”라는 기사	<b>200년간 점령했던 곳의 기록인 《삼국사기》에서 이 기록이 유일한 하나의 기사임</b>

**《임나일본부》 성립 조건** ⇒ 광개토대왕비에 나오는 倭가 畿內 <야마토정권>의 군사력이라는 것을 밝혀야 함

[전제] ① 4c말 기내 야마토정권이 서부일본을 통일했어야 한다.

② 백제칠지도가 백제의 공납품이라는 것이 증명되어야 한다.

③ 에다 후나야마고분 출토 칼을 야마토정권이 하사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한다.

④ 광개토대왕비문에 나오는 倭가 야마토정권의 倭라는 것이 증명되어야 한다.

⇒ ④가 직접적으로 《임나설》의 대전제와 연결

# ① 야마또정권의 서부일본 통합시기



## 야마또정권의 서부통합시기가 언제인가?

⇒ 일본역사 발전의 기점을 밝히는 고리이며, 동시에 《任那說》의 성립여부를 규정하는 관건적 문제임

### [북한(조희승)의 문제제기]

야마또정권이 남부조선에 출병하여 식민지 지배기관인 <日本府>를 두고 200년간을 유지하려면, 서부일본을 완전히 지배 통제하는 상태이어야 한다.

### [일본 사학계의 입장]

《일본서기》의 무조건적 <신뢰>를 기반으로, 《임나일본부》가 조선에 있었다는 결론을 전제로 야마또정권의 《서부일본 통합시기》를 일방적으로 규정

근거

#### ① 고고학적 유적, 유물 증거

호태왕비의 <倭>가 <畿内の倭>라는 증거는 없고, 2대 고분이 4C말~5C초라는 고고학적 조사가 전혀 없었다. 다이센 고분에 우연히 거울, 검, 투구갑옷이 나왔는데, 이것은 5C말 경 조선식 유물과 같다.

⇒ 일본 사학계는 오히려 4C중반 이후에 조선출병 및 <任那府>를 설치할 정도로 강력했으니, 5C초에 가와찌(오사카) 지역에 거대한 2대 고분(응신, 인덕릉)의 축조가 가능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함

#### ② 《속일본기》 지역 구분

야마또지방은 8C까지도 <大倭國, 大養德國>이었고, 가와찌는 후에 이즈미, 가와찌, 셋쓰로 나뉘어지지만, 7C까지도 가와찌(河內)였다. 8C이후에도 야마또와 가와찌 사이에는 엄격한 구분이 계속됐다.

#### ③ 기마풍습 전래 시기의 문제

일본은 6C중엽까지 제철 기술조차 없었으며, 일본열도에 기병용 마구류가 처음 출현한 것은 5C초 북큐슈 지역이며, 가와찌지역에 상륙한 것은 5C중엽이다. ⇒ 倭의 보병으로 강력한 기병을 보유한 조선을 제압할 수 없다.

#### ④ 일본열도의 사회적 단계

- 《宋書》<東夷傳 倭國> 425~478년에 왜왕이 송나라에 보낸 기록을 볼 때 5C 일본열도는 수십개의 소국으로 갈라져 있음.
- 唐 위징이 쓴 《隋書》<倭國傳>에 608년 문림랑 배청이 일본에 갔을 때 왜국은 쓰구시 동쪽만 통제 하에 있다고 함.
- 《日本書紀》<계체기, 21년>인 527년 쓰구시(북큐슈)의 이와이가 큐슈에서 야마또의 수만대군과 전쟁을 벌임

⇒ 야마또정권에 의한 서부일본통합은 빨리 보아도 아와이의 반란이 있었던 6C 중엽으로 이후였으며, 그 이전에는 4~10국의 소국 할거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 ② 광개토왕릉비문에 나오는 《倭》



### 광개토대왕릉비문 2단(논란의 기사)

- 광개토대왕이 고구려군을 이끌고 남하하여, 백제를 치고 영락6년(396년)에는 또 수군을 영솔 하여 출진해 백제의 58개성을 함락시킴
- 영락10년(400년)에는 신라를 구원하고 임나가리를 공격하여 남해안 일대까지 진출하였고,
- 영락14년(404년)에는 왜가 대방지역에 들어왔기에 이를 무찔렀다.

### <일본의 주장>

陵碑에 나오는 **倭를 기내 야마토 정권으로 묘사**하면서 《4C말 대방계선까지 진출하여 남하하는 강대한 고구려군과 격전을 벌릴 정도》로 (왜가) 강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야마토 정권이 임나(가야)를 지배 했다고 단정하며 **倭관계 기사의 주어를 아전인수격으로 몽땅 倭로 보면서 고찰 서술함**

### <북한(조희승)의 견해>

- 광개토왕비문의 기본내용은 **고구려 왕의 공적비임**.
- 이러한 성격에 맞게 신묘년조 **문장의 주격은 고구려이며 광개토왕**이라는 것을 재확인 함.

### [陵碑에 나오는 倭의 정체]

倭가 《삼국사기》 <박제상 열전>에 나오는 倭로 보면서

① 가야, 신라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倭이다. ② 전 일본적으로 기마전투무기가 가장 일찍 출현한 지역이다.

⇒ **陵碑에 나오는 倭는 이또지마반도 일대에 형성 발전한 倭 小國이다. 이들은 고국 가야편에서 고구려, 신라와 싸운 倭였다고 봐야한다.**

- 이또지마반도 북쪽인 <시마군>은 예로부터 가야(可也)라고 불림.
- 10C에 편찬된 《화명초》에는 《시마고을 가야마을(加夜鄉, 韓良鄉)>이라고 알려짐.
- 일대에 있는 키 작은 倭인들이 많았는데 고구려인은 그들을 모두 倭, 倭人으로 불렀다.

### ③ 백제칠지도



나라현 이소노가마(石上)神宮에 소장되어 있는 백제칠지도 銘文

- 명문을 해독한 이는 **간(菅政友)**은 1873년 이소노가미신궁의 궁사였고, 1877년 태정관의 수사국 학자로 칠지도 명문을 읽은 후, 1893년 《임나고》를 발표했다.
- 간은 《일본서기》신공황후 52년 9월의 기사 《구테이 등을 백제국에 보냈다. …… 곧 칠지도(七支刀)하나, 일자경 1면 및 보물을 바쳤다.》와 결부시켜 <백제왕>이 <왜왕>을 위하여 제작한 것이며 복속의 증거로 공납한 것으로 해석했다.
- 칠지도에 상감된 년호를 西晉 泰始4년(268년)으로 하고 泰始4년(252년)은 신공황후 섭정68년 무자에 해당한다.

#### [일본의 왜곡]

간지를 끌어 내려《일본서기》신공52년(임신년)을 두 盾(120년) 끌어내려 372년이라 하고, 칠지도의 년호가 <泰始>가 아니라 **東晉의 <太和>로 보면서** 泰和 4년은 곧 369년이라 하였다.

(이후, 369, 371년 백제 근초고왕이 남하하는 고구려 격파 결과를 왜의 조선출병원조로 해석)

⇒ 《太》와《泰》는 뜻이 통하므로 **東晉의 년호가 틀림없다고 근거 없이 단정**

#### [북한의 주장]

- ① 칠지도 상감문은 공상품이거나 《헌납》식 문투가 아니라 **下行文 즉 하사품**이라는 것이 명명백백함 (前面) <宜供供侯王> … (後面) <爲倭王旨造傳示後世> /- <侯王>인 <倭王>을 위하여 만들고 <後世에 전하고 보이라>고 말하고 있음
- ② 칠지도 명문에 있는 **<泰和>는 백제의 고유한 년호**이며, 그 泰和4년은 **408년에 해당**하며 칠지도는 백제왕이 그 후왕에게 내려보내 주었다는 것임.
- ③ 과거, **클태<泰>**를 생략해서 **콩태<太>**로 쓰는 경우는 간혹 있으나, 반대로 획수가 적은 <太>를 <泰>로 쓰는 경우는 거의 없고, 새기기 더욱 **어려운 <泰>로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

⇒ 백제 七支刀는 5C초에 가와찌에 형성된 백제계통 **倭 소국왕에게 백제왕(전지왕)이 하사한 것이며, 6C 초엽 가와찌(인덕천황)의 <백제-가야세력>이 나라분지에 동천 할 때 七支刀도 옮겨갔을 주장**

## ④ 에다 후나야마고분



### 에다 후나야마고분(江田船山古墳)

- 구마모토(熊本)개현 다마나군(玉名郡) 나고미정(和水町)에 있는 전방후원분으로 분구 길이는 62m이다. 1873년 발견된 이후 여러 출토품이 나왔는데, 그 중 글자가 새겨진 은상감 대도, 금동관, 신발과 거울 등 호화로운 유물이 출토되었다.
- 4C말~5C초 <야마또정권>이 조선에 출병하려면 5C 초 규슈(서부일본)지방 호족들이 <야마또정권>에 복속해 있었다는 《유력한 증거》가 규슈의 구마모토에 있는 에다 <후나야마고분>이다.

### [일본의 왜곡]

일본학자들이 출토된 칼의 명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오히려 《任那說》을 입증할 자료로 사용함 .

《治天下 〇〇齒大千王世》 명문 첫부분에 있는 일본왕의 이름을 일본식으로 부름으로써 《임나일본부》설을 합리적으로 꾸미려 맞추려는 모양

⇒ 억지로 꾸민 데 틈이 많은 약점 투성임에도 5C 초 야마또정권에 복속된 규슈의 권력이 야마또에 대두 및 호화로운 장신구 등을 하사한 것으로 설명

### [북한의 주장]

① 명문 자체의 어구나 인명에 일본식은 표기는 조선식 이두 이름이며, 문제 또한 조선식임

⇒ <无O로><伊大加>, 삼국사기 열전에도 일람됨

② < 후나야마고분 > 출토의 관모와 비슷한 금동관이 옛 백제 땅인 나주 반남면에서 나왔으며, 거울과 금귀걸이, 금동신발 그리고 특히, 백제 무령왕릉 출토 유물과 거의 같다. 또한, 무령왕릉의 거울은 가와찌 다이센고분(인덕릉), 이까루가 후지노끼고분 석관 등에서도 나왔다.

⇒ 고분의 피장자는 백제 개로왕에 대한 신속의 표시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조선제 장구로 치장하고 안장됨.

⇒ 백제왕이 서부 규슈와 가와찌 야마또의 피장자들에게 거울과 칼들을 하사해 주었다는 것을 입증함.

5C초 조일관계는 야마또를 중심으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고구려나 백제를 축으로 움직인 것을 보여줌

## ⑤ 前方後圓墳, 前方後方墳



일본에는 고분이 10여만개나 존재함.

일본은 전방후원, 전방후방분을 일본 고유의 묘제라 보며, 심지어 조선에 있는 것까지 무조건 일본 것이며 이는 야마토정권의 군사적 진출의 《유력한 증거》라 한다.

### [朝鮮의 墓祭]

7C 이전의 모든 문물이 그러한 것 처럼, 일본의 문화는 다 조선에서 건너갔으며, <전방후원>, <전방후방분>도 원래 조선 고유의 묘제이다. 조선 것이 일본에 건너가 유행된 것이 이러한 묘제이다.

삼국시기 조선무덤 외형의 기본은 원형과 방형이며, 조선의 무덤은 예로부터 크던 작던 다 <祭壇>이 붙어 있으며, 지배층급의 큰 무덤 앞에는 네모난 제단이 붙는다.

특히, 일본에 건너간 지배층은 자기 권력의 정치적 시위로 행사를 거행하기 위해 제단을 크게 만들어 원주민에게 위압감을 주기 위해 네모난 제단(전방)을 크게 만든다.

### [북한의 주장]

- 남부조선 일대에 <전방후원분> 10여기 확인 → 영산강 유역의 <전방후원분>이 서부규슈에 영향
- 《前方後圓墳》은 조선의 고유한 것이며, 발전된 <고구려적 영향>에 의하여 이룩된 것
- 자강도 일대에 고구려 초기 <전방후방분>이 발견됨으로 이러한 묘제의 기원을 밝혀지게 됨.
- 일본의 방분과 전방후방분 그리고 <사우(四隅)> 돌출모양 방분(方墳)은 바다건너 고구려와 인접한 동해안 면한 지역 들에만 독특하게 존재한다.

### [결론]

《任那日本府》설이 디디고 서있는 중요자료들은, 《任那說》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반대로 조선 이주민들이 일본 땅으로 적극 진출한 발자취를 반영한 반증자료이다.

《任那日本府》설은 허공에 뜬 사이비학설이며, 《任那日本府》는 옛 임나가라 지방에 그 어떤 고고학적 유적 유물도 없는 허구이다.

# 04

《任那日本府》는 기비(吉備)지방에



1. 《任那日本府》의 位置
2. 《任那日本府》의 正體

# 《任那日本府》의 위치



## 《任那說》해결의 열쇠

- ① 《任那日本府》가 어디에 설치되었는가의 위치를 확정하는게 문제의 핵심이다.  
⇒ 《日本書紀》의 임나관계 기사에서 나오는 《任那日本府》를 아무런 타당성과 근거 없는 조선 땅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일본 열도에서 가야 소국의 존재를 입증하고 가야와 인접한 지역에 있었다는 신라와 백제, 고구려 소국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任那日本府》 해결의 열쇠이다.**
- ② 《日本書紀》에 실린 임나관계 기사들이 **일정한 역사적 사실을 반영한 것이다.**  
⇒ 조선계통의 **소국의 존재가 《日本書紀》의 임나관계기사의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 일본 (서부)내 존재한 <가야국 선정>의 기준

- ① 사료에 가야지명이 있는 곳, ② 국가(소국)으로 불리우며 존재하고 있었는가?
- ③ 가야지명이 붙은 시기가 언제인가? ④ 고고학적 유적, 유물을 통하여 국가성립시기의 조선(가야)적 색채 식별한다.
- ⑤ 《日本書紀》 임나관계기사와 맞추어 본다.

## 《일본지명대사전》<지명백과사전, 1938>

- 가야(可也) 후쿠오카현 짜꾸젠국 이또지마군
- 가야(加夜, 賀夜) 오카야마현 빗쭈국
- 가야(加悅) 교토부 여사노군
- 가야(河陽) 교토부 오토와(乙訓)군
- 가야(蚊屋) 시가현 오미군 애지군
- 가야(蚊星) 호끼국(돗토리현)
- 가야(鹿谷) 효고현 시카마군
- 가야(賀陽) 효고현 시로사끼군



서부일본에서 《가야》란 지명이 <이즈모>와 <단고>를 비롯한 동해연안과 조선과 가장 가까운 북큐슈의 <찌꾸젠> 그리고 세토내해의 <기비>와 <하리마>, <비화호> 주변에 있다.

⇒ 이중 **기비(吉備)**지방이 가장 유력

◆ **기비(吉備)의 지명은 수수(기비)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이는데, 기비지방은 고대부터 수수나 벼 등 오곡생산이 활발한 지역이었음

# 기비(吉備)가 《日本書紀》의 任那①



《<國朝本紀>에 보는 기비의 나라 이름, 응신천황 때 쇼도국 국조의 아버지 <나카히코노미코토>를 국조로 임명한다고 되어 있다, **國郡制定**<sup>1</sup> 시 가야군으로 되어 **빗쥬국**<sup>2</sup>에 속하게 됨》

《**가야(군) 빗쥬국의 옛 고을명**, <일본서기>응신 22년조에 **가야(蚊屋)**의 이름이 보이며, <국조본기>에는 가야국으로 만든다. <연희식>, <화명초>는 다 같이 **가야(賀夜)**로 만들고 ... 14개 향을 둔다.》

1. 국군제정(國郡制定)이란 701년 대보(大寶)울령에 의해 國·郡·리의 3단계 행정조직 편성 한 것
2. **빗쥬국(備中國)**은 지금의 오카야마(岡山)현 중앙부에 위치한 **소자시(総社市)**로 수많은 고대유적, 유물이 있는 곳이다.  
7C 후반 기비국(吉備國), 비젠국(備前國), **빗쥬국(備中國)**, 빙고국(備後國)으로 나뉘었다.

[ 일본의 옛 울령국 ] <https://ko.wikipedia.org/wiki>



기나이	야마시로, 야마토, 요시노, 가와치, 이즈미, 셋쓰
도카이도	이가, 이세, 시마, 오와리, 미카와, 도토미, 스루가, 이즈, 가이, 사가미, 무시시, 아와, 가즈사, 시모사, 히타치
도산도	오미, 미노, 히다, 시나노, 스와, 고즈케, 시모쓰케, 데와, 우젠, 우고, 무쓰, 이와키, 이와세, 리쿠오, 리쿠추, 리쿠젠, 이와키, 이와시로
후쿠리쿠도	와카사, 에치젠, 가가, 노토, 옛쥬, 에치고, 사도
산인도	단바, 단고, 다지마, 이나바, 호키, 이즈모, 이와미, 오키
산요도	하리마, 미마사카, <b>비젠</b> , <b>빗쥬</b> , <b>빙고</b> , 아키, 스오, 나가토
난카이도	기이, 아와지, 아와, 사누키, 이요, 도사
사이카이도	지쿠젠, 지쿠고, 부젠, 분고, 히젠, 히고, 휴가, 오스미, 다네, 사쓰마, 이키, 쓰시마
홋카이도	오시마, 시리베시, 이부리, 이시카리, 테시오, 기타미, 히다카, 카치, 구시로, 네무로, 지시마

# 기비가 《日本書紀》의 任那②



## [기비 가야국과 가야씨]

- 기비지방의 가야고을은 본시 <가야국>이었던 것이  
645년 《대화개신》이후 국군제도가 실시되면서, 국(나라)의 격을 떨구어 군(고을)으로 함.
- 《日本書紀》에 나온 <기비>란 명칭은 7C에 생겨난 이름이었으며, 그 이전에는 <가야국>이라 불렀다.

- 《일본서기》 임나관계기사에 수없이 등장하는 임나국사, 임나파견기사는 <기비노오미(賀陽臣)>기사로 시작하여 임나에서 활동하는 주요인물의 기본은 <기비노오미>이다.
- 《기비군지》(상권142p)에 따르면 현재 <기비쯔>로 불리우는 기비 중심의 나루명이 고대에는 <가야쯔(賀夜津, 伽耶津, 賀陽津)>로 불렸음.
- 기비지방의 유력한 씨족은 <가야씨>가 있는데, 이들의 조상인 <가야국조(賀夜國造-가야노구니노 미야쯔꼬)>의 후예임.
- 기비지역 최대신사는 <기비쯔신사>인데 역대 신관은 <가야씨>임  
⇒ <가야씨>는 신사명과 국명은 <기비>로 바꿨지만, 조상의 이름인 <가야>만은 바꿀 수 없었다.
- 《令義解(833년)》와 《和名抄(937)》같은 고문서에 기비 가야국에 대해, 《가야국(賀夜國)은 응신(270~310) … 때》 있었으며, 그의 후예가 <가야노오미(香屋臣)>라 함.
- 《고사기》, 《일본서기》에 <기비쯔히꼬노 미꼬또>가 야마또국가의 창립에 4도 장군의 한 명으로 <야마또 다께루>와 더불어 사방의 정벌군 총수로 활약한 기록

⇒ 《기비쯔신사》의 진짜 조상은 기노조산성(鬼之城)을 구축한 <우라(溫羅)>이다.

# 기비가 《日本書紀》의 任那③



## [기노조산성(鬼之城)과 《우라(溫羅)》]

### ➤ 일본내 고대 조선식산성유적은 조선계통의 이주민들이 형성한 <소국>의 상징

- 조선식산성은 조선만의 고유한 방법으로 조선사람 이외에 쌓지 않는 산성이며 이는 **조선이주 집단이 축조한 군사방어시설이다. 또한 주위에는 반드시 조선이주민집단 고분군과 거주지가 존재했다.**
- 오카야마의 **기노조산성(鬼之城)**나 후쿠오카의 오노쥬(大野城)도 5C 경 판축기법을 사용하여 고대 **조선인(가야인)**이 축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 기노조산성은 **기비 가야국 중심부인 옛 하도리(服部)향과 아시모리(足守)향의 중심**에 가야국 가야씨 본관지를 옹호하듯 자리잡고 있으며, 산성 아래에는 **쯔꾸리아마(造山, 作山)**고분이 있다.

**일본학계는 고대조선식 산성유적의 축조시기를 대부분 7C 백제멸망 후 백제유민이 쌓았다고 몰아간다.**

**[반론 → 5C 이전 쌓은 조선식 산성도 무수히 존재하고 있다.]**

- ⇒ 《하리마풍토기(8C)》에는 전해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하리마(효고현)지방에 호무다천황(응신천황)때 건너온 백제사람들이 그 풍속에 따라 성을 만들고 살았다.**
- ⇒ 《고사기》, 《일본서기》에도 일본에 건너간 **조선사람들이 <쯔쯔끼>라는 조선식 산성을 쌓고 살았다.**

### ➤ 기노조산성을 쌓은 《우라》의 전설

- [조선 신화와 유사 - 동명왕편(해모수와 하백), **가락국기(김수로와 탈해의 다툼)**]  
큰 세력을 가진 《우라》가 기비땅에 정착하여 자기의 성새(산성)를 구축하여 살았는데, <우라>와 <기비쯔히꼬>가 싸우면서 꿩이 되자 매가 되고 잉어가 되자 물새가 된다는 식의 설화
- 《우라》의 이름 유래가 **백제 왕호《어라하》**라 부른 것
- 《우라》의 전설을 기재하고 전하는 《연기》는 <기쯔비신사의 유래>이자 신관 <가야씨 조상유래기> 임

# 기비가 《日本書紀》의 任那④



## 《모모따로(桃太郎, 복숭아 아이)》 전설

< 기비-오까야마현이 전설의 원산지 > 늙은 부부가 복숭아에서 나온 아이를 키웠는데 이후 용맹한 성인이 되자 바다 건너 도깨비 소굴로 간다. 가는 도중 썩, 개, 원숭이를 만나 이를 부하로 만들어 도깨비를 요절내고 고향 기비로 돌아온다는 이야기.

⇒ 기비지역의 가야 소국이 힘을 키워 지도자가 썩, 개, 원숭이로 상징되는 부족민을 이끌고 바다 건너 시코쿠섬 사누끼(까가와현)을 정벌했던 일이 설화로 남음 《일본에서 조선소국의 형성과 발전》

⇒ 《모모따로》가 <기비쯔히꼬>라는 것은 곧 《모모따로》가 가야국의 유력했던 조상의 한 사람이었던 것을 시사

## [조선적 유물로 가득 찬 기비(吉備)의 고분]

《쯔꾸리아마(造山)고분》(일본에서 4번째 큰 고분) 중 사까끼야마(本神山)고분에서 일본에서 유일한 <청동제 말모양 띠고리> 발견

⇒ 이는 한국의 평양, 상주, 선산 및 스키타이 지역 등에서 출토된 **조선식유물**(삼각형내사선입무늬)임.

⇒ 고분 축조시기는 430~450년(5C 전반)

## [기비 가야국이 거느린 가라소국]

<오까야마현 조도군>에 있는 기비가야국의 대표적 소국인 <가라소국>은 고대 <가미쯔미찌(上道)>라 불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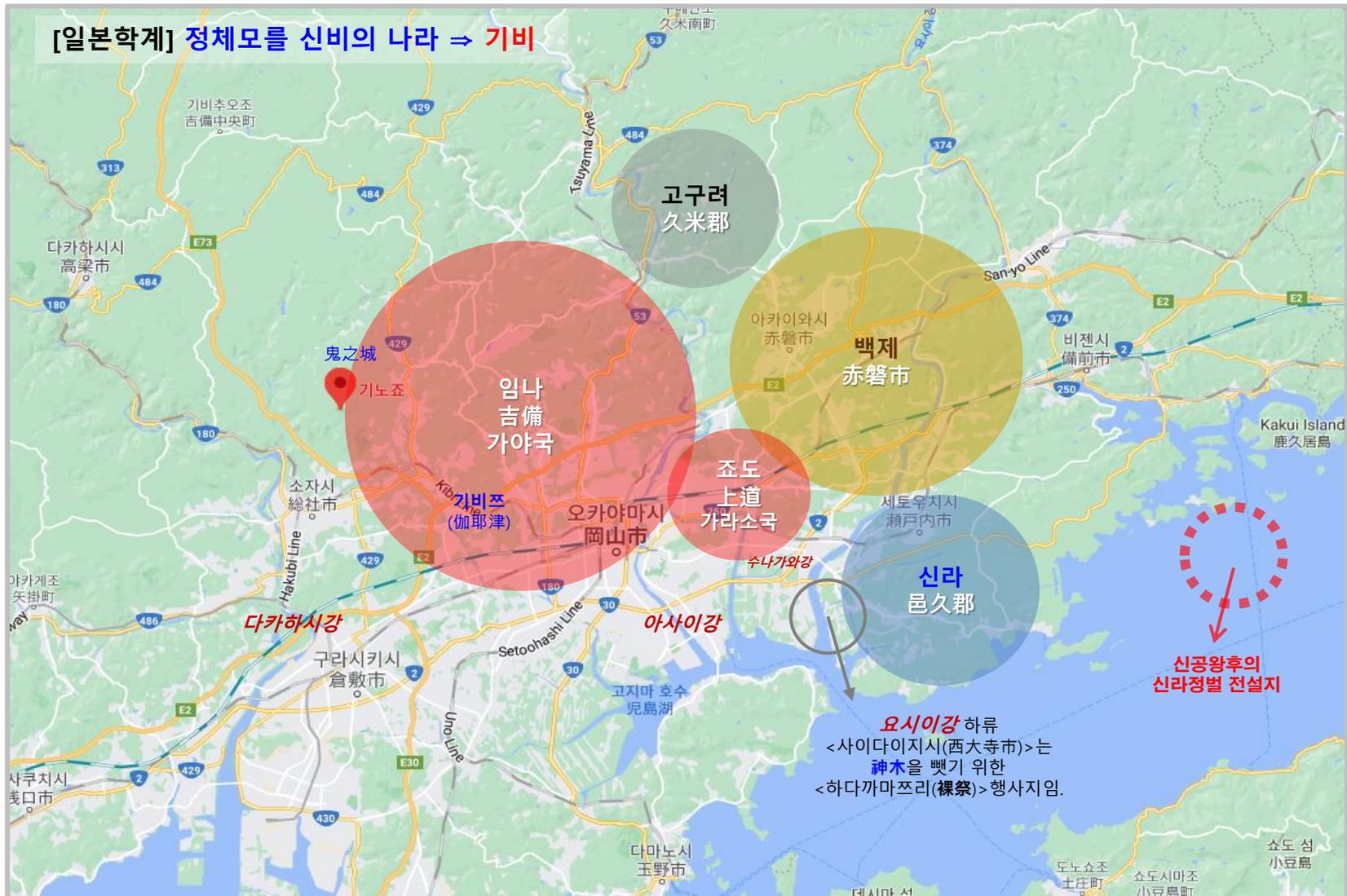
- 9개 향을 다스린 조도군은 조선계통 지명이 제일 많음.

- 조선식 산성도 존재

- 《일본서기》(10권 응신22년 9월조) 《국조본기》에서 <기비 가야군(국-임나)>과 <조도군>의 조상이 같다 함.

[결론] ⇒ 조선반도 남부 가야에 있었다고 하는 임나는 일본의 <기비현 오까야마현>을 가르킨다.

# 기비지역의 삼한소국



# 기비 시라기(新羅)



- 《日本書紀》 임나관계 기사에서 제일 많고 중요하게 등장하는 것이 신라이다. 동시에 <증애천황>의 부인인 신공황후가 진행했다는 《삼한정벌》 가운데 주요 공격 대상국은 신라였다.
- 일본 학자들은 신라를 <조선의 신라>로 믿지만, 《日本書紀》에 나오는 해당 기사들이 《三國史記》(신라본기)를 비롯한 문헌자료 및 고고학 자료와는 전혀 맞지 않는다. → 일본열도에서 찾아야 한다.

## ➤ 《續日本記<sup>1</sup>》(15권천평15년-743년 5월 병인조)에 <신라소국 위치>기록

⇒ 기비의 나라를 구성하는 비젠국이 743년(천평 15년)에 중앙정부에 보고 한 내용에 <오꾸고을>이 신라였음을 기록.

1. 《續日本記》 697년~791년까지 일본 역사를 엮은 편년체 역사책으로 797년 편찬되었으며, <나라시대>의 근본사료로 정평이 높은 사료

## ➤ 《요까야마현통사》(상편 231p)

⇒ 《요까야마현 ... 오꾸군의 동남방 우시마도(牛窓)부근이 신라사람들의 본거지로 옛날에는 고시라꾸(吉志樂), 사라꾸(志樂, 師樂라고 쓰는데 新羅國의 뜻이다.》

## ➤ 《국사본기》

⇒ <오꾸>일대에 오오호꾸국(大伯國)을 두었는데 <伯>은 <하꾸>, <호꾸>라고 읽었으나, 본래는 <희다>는 뜻인 <시라>, <시로>로서 고대에는 <시라(희다)>라고 읽었다. 다시 말해 《伯國》이란 <하꾸의 나라>, <흰나라>, <시라(신라)의 나라>라는 뜻이다.

## ➤ 《本朝神社考<하야시 라산(林羅山), 1583~1657년, 에도막부시대 최대의 유학자>》 <오꾸고을>의 전설

⇒ 신공황후가 신라를 치기위해 야마또를 떠난다. 신공이 탄 배가 비젠 앞바다를 지나는데 큰 황소가 나타나 배를 뒤집으려 하자, 수미에신이 나타나 황소를 제압했다. 그래서 그곳을 《우시마로비》라 하다 후대에 《우시마도(錦海)》로 되었다.

➤ 오꾸군 일대에는 신라계통 조선이주민집단인 하따(秦)씨가 수많이 정착해 있었고, 우시마도에는 《가라꼬(韓子)오도리》(조선춤)이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고 있다.

## [결론] 《日本書紀》 임나관계 기사에 나오는 신라소국의 위치는?

⇒ 기비가야국과 인접한 요시이강(吉備川) 동쪽에 위치한 오늘의 오꾸군(邑久郡) 일대가 <시라기-신라소국>이다.

# 기비의 구다라(大多羅/百濟)



- 《日本書紀》 임나관계기사에  
신라의 서북쪽에 <구다라>가 있고 싸움이 잦은 곳이라 했다.
- 《요까야마현통사》의 지명 유래  
⇒ 요시이강 유역인 오늘의 와게군 기다야마가따(北山方) 일대와 시오다(鹽田)라는 고장에 《구다라》라는 지명이 있음  
- 오오다라(大多羅)는 일명 《백제(대다라, 구다라)》 또는 거(居)가 크다란 뜻이면 《거다라》라 불림.
- 《아카이와군지》(향토사, 1940년판 230p)  
⇒ 와게군 일대에 <인베야끼(伊部燒)>라는 질그릇 굽는 가마터가 있는데, 현재는 <베젠야끼(備前燒)>라 한다.
- 《신성찬씨록》에 인베(伊部)는 고대 백제성씨로 《백제국 내리오미의 후손》이라 함

## [결론]

- ⇒ 《日本書紀》의 《구다라(백제)》 위치는  
아카이와군(赤磐郡)과 와게군(和氣郡) 일대이다.



# 기비의 고마(久米/高句麗)



- 《日本書紀》 임나관계기사에  
**고마**는(高麗-고구려)는 **임나(가야)의 북쪽**에 있고 구다라와 시라기가 고마국의 남쪽지척에 있다.
- 《요까야마현통사》(상편 245p)의 지명 유래
  - 요시이강과 아사이강을 낀 《구다라》 북쪽에 쌀 생산지로 유명한 **구메**(久米)라는 지명이 있음
  - <구메>는 <**고마**>가 변화된 말로 고마히또(肥人)족이다.
- 《아카이와군지》에
  - <구메>의 남쪽 끝에 미쯔(御津)군에는 고구려에서 나온 《고려》라는 지명이 집중적으로 분포함
  - **고려(高麗, 고오라이)**라는 지명이 다 같이 17개소 수준임.



## [결론]

⇒ 《日本書紀》의 <고마=고구려>소국의 위치는 <고마>와 <고오라이>가 집중된 **구메군(久米郡)일대**이다.

# 《任那日本府》의 正體 ①



《日本書紀》 雄略紀, 繼體紀, 欽明紀의 임나관계기사에 나오는 《임나일본부》가 어떻게 기비지방의 이 소국들에게 반영되었는가?

《日本書紀》 (雄略紀 7년, 463년~5세기) 기사

기비 출신 <유게베노오오조라(吉備弓削部虚空)>와 <시노즈미찌노오미사가쓰야(吉備下道臣前津屋)>의 등장으로 시작.

이들 기비출신 인물들이 야마토의 왕에게 반감을 갖게 되자 야마토의 왕은 이들, 기비씨일족 70명을 잡아 죽인다.

그 이후 <다사> 파견문제와 <신라정벌> 기사가 나온다. <다사>의 파견문제로 야마토의 왕이 신하인 <기비노자미쯔미찌다사(吉備上道臣多佐)>를 임나국사로 파견한다.

이에 앞서 <다사>는 자기 아내를 미인이라 자랑했는데, 야마토의 왕이 이를 알고 <다사>를 멀리 임나(가야)에 파견하고, 그 틈에 <다사>의 처 <와카히메>를 가까이 했다.

이에 반감을 가진 <다사>는 신라에 들어가려고 하였다. 그때 신라는 야마토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리하여 야마토의 왕은 <기비노아마베아카오(吉備海部赤尾)> 등에게 신라를 치게 했다.

※ <다사(多佐, 多沙, 帶沙)>는 가미쯔미찌(上道, 오늘 오카야마 죠도군)사람이고, 그의 아내(와카히메) 역시 기비지방 가미쯔미찌오오미(오카야마 구보야군)의 딸이다.

⇒ (일본학자들은) 위 기사를 가지고 야마토정권이 남부조선에 있던 임나라가에 <기비노가미쯔미찌노오미다사>를 보내 신라 백제를 지배한 것으로 역설

➢ 《雄略紀》기사에 나오는 <다사>관계기사의 대부분 인물들이 모두 <기비 오카야마현> 사람이다.

※ 기사는 5세기(웅략기) 내용이지만, 지명이름은 8세기 《일본서기》 편찬 당시 고을명이다.

⇒ 주요인물들이 기비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은 것은 임나문제란 바로 조선의 임나가 아니라, 기비의 임나(가야)관계기사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 《任那日本府》의 正體②



《日本書紀》(雄略紀 23년, 478년) 기사

아마또정권이 신라정벌에 <기노오유미노 수꾸레>와 <오오도모노 무로야노무라지> 두 장수를 대장으로 삼고 임나(가야)에 파견하였다.

그런데 <기노오유미>가 상처를 해서 시종드는 여자가 없다고 하자, 아마또 왕은 궁녀인 <기비노가미쯔미찌노우네메 오오시아마>를 후처로 삼게 하여 신라로 보낸다.

하지만 남편 <오유미>는 병으로 죽자, 그의 아내 <오오시아마>는 남편의 주검을 <가와찌(오사카)>의 다와무라 마을에 안장을 도와준 <오오도모노>에게 <가미쯔미찌>의 가시다마다 마을의 노비 6명을 섬겨바쳤다.

➤ 《雄略紀》기사에서는

- 신라정벌을 위해 임라(가라)에 파견된 장수를 위로하기 위해 **기비가미쯔미찌(上道, 죠도군) 출신 궁녀 <오오시아마>**를 데리고 가게 한 것은, 바로 **<오오시아마>가 적대국인 신라의 지척인 <죤도> 즉 <가라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 《일본서기》에 상기 6명의 가라노비들은 <기비 죠도군>의 <가시마다마을(蚊嶋田邑)> 가인부의 노비라 함.
- 《오까야마현통사》(207p) 에 현재 지명 유래가 모두 남아있다.

《日本書紀》는 역사서의 기초인 연대부터 맞지 않아 그 기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빨리야서기 3C 이후에나 시작했던 <아마토왜>의 역사를 서기 전 660년으로 1천년 끌어 올렸기 때문에 허구의 일왕이 많다. 특히 실제 《日本書紀》는 720년 편찬된 원본이 아니라 **무수한 손질을 거쳐서 《三國史記》보다 훨씬 후대에 묶여진 것**이라는 사실은 말하지 않는다.

# 《任那日本府》의 正體③



《日本書紀》 <繼體紀 23년, 530년>에서 임나(가야)의 소국인 가라(아라)와 신라, 백제 그리고 야마또의 군사들 사이에 벌어진 복잡한 전쟁과정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등장한 인물과 특히, <가라>의 <다사(帶沙)강>, <다다라(多多良)>, <다사쯔(多沙津)> 등의 위치이다.

⇒ 이 곳은 《임나설》을 주장하는 일본학자들이 **조선남부(섬진강 하구, 합천 등 가야지역)에 있었다는 대전제 하에 조작된 《학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지명들이 모두 일본열도 기비지방에 있다.

➢ <다사(多佐, 多沙, 帶沙)>와 <다다라(多多良)>는 **기비 조도(上道, 가미쯔가찌)에 있다.**

- 다사(多佐)의 이름에서 유래된 지명으로 <아사히강>과 <요시이강> 사이를 흐르는 <수나가와(砂川)>라는 강이름 이었다. 임나국사로 파견된 <다사(多佐, 多沙, 帶沙)>에서 유래된 강이름이다.

- 동북아역사재단 <역주 일본서기1>에서는 <다사(多沙)>를 경남과 전남의 경계인 **섬진강 하구(하동지방)**라 비정함.

➢ <다다라(多多羅)>와 <와다(和多)>도 **기비지방 조도**에 있다.

- 게시고산 일대에 **다다라(大多良)**가 있고, 요시이강 기슭에도 **다다벌(多田原)**이 있다.

- **와다(和田)**는 《아카이와군지》에 수많은 기록이 있는데, 조도의 **뒷쪽 <아카이와고을> 일대가 <와다>**이다.

➢ 《일본서기》에 의하면 가라국에는 후에 백제에게 양도한 **다사(多沙)의 나루(다사쯔)가 있었다고 한다.**

- 다사(帶沙)강에 다사쯔(多沙津)가 있으면 <다사>는 북쪽에 있고 <다사쯔>는 바다 근처 강기슭에서 찾아야 한다.

⇒ <繼體紀> 임나관계 지명들은 <요시이강>과 <아사이강> 주변에 대부분 있다.

《일본서기》(신공50년조)에 따르면 백제왕이 구저를 사신으로 보내 조공을 바치면서 “만세에 이를 지라도 어느 해인들 조공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자 신공이 “너희 말이 훌륭하다.” 면서 **다사성(多沙城)**을 내려주었다고 나오는 곳이다.

- 신공50년은 서기 250년인데 주갑을 적용해 370년 일이라 했다. 하지만 370년은 신라 내물왕 15년, 백제 근초고왕 25년인데 국가도 형성 못한 <야마토왜>가 경상도 남부를 차지한 것은 근거가 없다.

(신공 49년) “신라를 공격해서 깨뜨리고 **비자발(比自爓)·남가라(南加羅)·락국(浚國)·안라(安羅)·다라(多羅) 7국**을 평정했다” 고 하고 여기에 **任那**를 설치했다. ⇒ 《삼국사기》에서 말하는 신라나 가야에 관한 사실이 아님.

# 《任那日本府》의 正體④



《日本書紀》欽明紀(2년, 541년)에는 <임나부흥>과 관련된 복잡한 사건이 주로 서술되어 있으며, 《임나일본부》의 결정적 근거가 나온다. ⇒ 《임나일본부》의 장관 즉 주인공이 모두 <기비사람>이다.

- <雄略紀, 繼體紀, 欽明紀>의 임나관련 기사에 등장하는 태반인 40~50명의 인물이 기비출신이다.
- 《일본서기》에는 임나국사나 《임나일본부》의 사명을 지닌 인물이 다같이 <기비사람>이다.
  - 임나국사는 기비 가미쯔미찌(쥬도)사람인 <다사>이고,
  - <흠명기>에 나오는 《임나일본부》의 장관 역시 <기비사람>인 <기비노오미(任那日本府吉臣)>이다.
- <웅략기>, <흠명기>는 다 조작된 《천황》의 시대인 5~6세기에 <기비>라는 국명은 없었다. 하지만, 8세기 《일본서기》편찬 당시에는 <기비>라는 지방국명은 있었으며, 그 시점에서 본 임나관계기사의 내용은 조선에서 있었던 사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서부 일본 기비지방에서 임나(미마나-가야), 시라기(신라)를 비롯한 조선소국들과 기내 <야마또정권> 사이에 있었던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 《任那日本府》라는 것은 가야(임나)국에 설치된 日本府(야마또노미꼬또모찌)라는 뜻인데, 일본(야마또)이란 말과 부(府-미꼬또모찌)라는 말은 그 당시(5~6세기)에는 없었다. 그것은 8세기 《일본서기》편찬 당시의 개념이었다. 서부일본을 통합하는 과정에 <야마또정권>은 자기의 대리인을 기비지방에 있던 가야(임나)에 보냈던 것이다. 그것도 그곳 실정을 잘 아는 <기비지방> 토호 출신 인물들을 《임나국사》 혹은 《임나일본부》로 파견한 것이다.

## [결론]

- ⇒ 《日本書紀》 임나관계 기사에 나오는 《任那日本府》는 기비지방 임나가라에 설치된 <야마또정권>의 전권 대표격인 행정적 출장기관 또는 그 기관을 책임진 관리였다. 이것이 기내 <야마또정권>이 파견한 《任那日本府》의 실체이고 정체였다.



**THANK YOU**